

공지사항

◇ [KOTRA] 이전가격 거래 세무조사에 대한 공지

베트남 경제동향

- 거시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불구, 경기침체 지속 우려
- 중앙은행, 소규모 은행 간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 촉구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준비 필요
-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회사에 어려움 가중
- 중고기계 수입금지에 의해 난관에 빠진 외국기업
- 베트남의 투자유치, 금년에도 지속 증가할 듯
- BBC조사, 베트남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다뤄
- EVN, 두산중공업·미쓰비시와 빈탄 4 발전소 EPC 계약 체결
- 2013년 베트남 대외교역 최고조 달해
- 2013년 베트남 성장률 5.4% 기록
- 인텔, 탈세 무혐의 처분
- TPP협정으로 미국기업 진출 발판 제공
- 2013년 베트남 10대 대외 뉴스

입찰정보

◇ Research to develop and master Balloon catheter and Drug eluting stent for PTCA manufacturing technology using nanotechnology

금주의 FOCUS

◇ 베트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방침 - KOTRA 하노이무역관 이보름 과장

전문가 칼럼/ 법령 안내

◇ 베트남 진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경리장(Chief Accountant)' - 이정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주요경제지표

* 베트남 투자뉴스는 하노이/호치민 무역관 공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전가격 거래 세무조사에 대한 공지

최근 한국투자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여 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 한국 투자기업의 수도 약 20개사 정도로 전해집니다.

이번 이전가격거래 세무조사에서는 기업의 이윤비율을 20% 이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업계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하며, 과거 거래 내역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앞서 이루어진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과세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 방안이라고 하오니, 향후 바뀐 조세 환경에 대응하여 투자기업의 경영 방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베트남 경영세미나에서 이전가격거래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 발표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아래에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http://infomailer.kotra.or.kr/20140102/%C0%CC%C0%FC%B0%A1%B0%DD%BC%BC%B9%AB%C1%B6%BB%E7%B4%EB%C0%C0%B9%E6%BE%C8EY%C7%D1%B1%DB.pdf>

- *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 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 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임.

거시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불구, 경기침체 지속 우려

- 2013년 주요 경제 지표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경기 침체가 2014년 이후에도 중요한 문제로 남은 채로 2013년 경제가 막을 내림.
- 최근 고위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변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12월 30일 하노이에서 재무부 주관으로 열린 컨퍼런스에 따르면 세수 목표 달성으로 세입 부족에 대한 큰 우려가 해소됨. 컨퍼런스에서 Nguyen Tan Dung 총리는 올해 정부 세수 목표 달성이 수개월 전 재무부의 예측만큼 어렵지 않은 점에 만족감을 표함.
- 재무부 Dinh Thien Dung 장관에 의하면 국가 세수입이 목표치에서 1% 초과 달성했다고 말함. 한편 재무부는 지난 9월에 세수 부족이 63조 동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재무부 장관은 국영 기업의 주식배당금으로 200조동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토지 사용료로 420조 동이 더하여지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함.
- 하지만 Nguyen Tan Dung 총리는 여전히 정부지출이 세수입을 초과하고 예산 지출이 과다하는 점을 지적함.
- 재무부에 의하면 2014년 세입이 782.7조 동으로 추산되는 데 비해 지출이 1,006조 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224조동이 부족할 것으로 계산됨.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5.3%에 해당되는 액수임.
- 2013년 경제는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5.42%의 성장을 기록하며 목표치인 5.5%에 매우 근접함.
- 2013년의 인플레이션은 6.04%로, 국회가 승인한 목표치인 7%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올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은행의 연속 도산 우려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을 수용하면서 잘 마무리되었음.
- 올해 15%의 성장을 보인 높은 수출 성장도 또 하나의 성공지표임. Truong Van Phoc 금융감독위원장은 환율이 1% 상승함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 성장세를 기록한바 환율 정책도 성공적이었다고 함.
-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음.

- 통계청장 Nguyen Bich Lam은 2013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질은 2014년에는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남아있다고 함.
- 베트남의 GDP에 대비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치임.
- Lam은 베트남 GDP 대비 총 요소 생산성은 겨우 19.59% 로, 한국의 51.32%나 말레이시아의 36.18%, 태국의 36.14%, 중국의 35.19%, 인도의 31.01% 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함.
- 베트남 경제연구소 대표 Tran Dinh Thien에 의하면 베트남 경제의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는 7~10% 수준의 저금리도 문제가 있다고 함. Thien은 낮은 대출 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며 오히려 경기 침체의 한 지표라고 말함.

- 출처 : Saigon Times Daily, 12.31일 -

중앙은행, 소규모 은행 간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 촉구

-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소규모 상업은행들 간의 합병 논의를 요청함.
- Nguyen Van Binh총재는 지난 주 호치민 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2014년 금융부문 발전계획을 소개하면서 지금이 소규모 은행들이 자신의 이익과 전체 은행 시스템을 위해 합병안을 모색할 좋은 시기라고 말함.
- 그는 소규모 은행들이 가까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빠르게 변해가는 금융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금융분야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은행권의 유동성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이자율이 안정되는 등 개선되었다고 말함.
- 그는 금융분야의 구조조정 계획이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현재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함. 또한 은행들이 구조조정계획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함.
- 총재는 금융 분야의 상호지분소유에 대해 이는 금융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상호지분소유는 금융 차입을 통해 가상 자금을 운영할 때 위험한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함.

- 그는 은행들이 관리를 강화하고 성공적인 합병을 이루어 간다면 2015년까지 금융 부문의 안정화를 달성하게 될 것이고, 2020년에는 지역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중앙은행 총재는 2014년도 은행들에게 어려운 해가 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위험 준비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자산공사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 빠른 대처를 촉구함.

- 출처 : Saigon Times Daily, 12.30일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대한 준비 필요

- 중앙경제관리국(CIEM) 부국장 Vo Tri Thanh은 기업들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가지고 올 기회를 잡으면서 도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함.
- Thanh은 베트남이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하면서 기업들이 경험을 쌓아왔지만, 경제통합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 하다고 함.
- 또한 기업들은 TPP에 관한 정책, 법률, 협정준수를 위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TPP가 체결 시 발생 가능한 소송이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2014년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TPP는 그동안 12개 국가들이 서로 의견차를 조정하기 위한 19차례의 협상이 있었음.
- 베트남 TPP 협상 대표단장 Tran Quoc Khanh에 의하면 WTO와 달리 이번 협정에서 TPP의 참가국들은 100% 관세를 폐지하여야 하며, 이 중 90%는 협정 발효 직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함.
- Khanh에 의하면 TPP 협정 체결 후, 당사자들은 TPP 규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0개월에서 12개월의 정책 조정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함.
- 현재 수출 관세와 중고품 수입관세, TPP 회원국 기업들의 소송권과 같은 많은 이슈들이 논의 중에 있음.
- TPP는 국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개혁과 정부정책 개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업 들은 협정과 아울러 정부정책의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여야 한다고 함.
- 또한 Thanh은 수출입 자료에 근거하여 60~70%의 베트남 상품들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함. 따라서 베트남이 TPP를 체결하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구성되는 관세 동맹 그리고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수출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위기가 발생할 때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입장을 표명함.

- Khan은 TPP가 베트남 기업들에게 역내, 국제 생산망에 가입할 수 있고 베트남 경제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가능하게 할 기회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함.

- 출처 : Saigon Times Daily, 12.31일 -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회사에 어려움 가중

- 2014년 1월1일부터 인상 예정인 최저임금으로 외국투자회사에 어려움이 예상됨.
- Sung Hyun Vina (한국의 투자회사로 Binh Duong에서 가죽 신발 제품을 생산)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 이 회사는 지금까지 계속 임금을 인상하여 왔지만, 같은 공단 내의 다른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는데 자신들만 인상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파업을 하거나 직장을 옮길 것이라고 말함.
- 베트남 전역의 각 지역에 공장을 소유하면서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Scavi 그룹은 최저임금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매달 10억 동(47,600달러)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함.
- 이 회사 관계자는 임금인상에 대비하여 다양한 비용절감 조치를 취해왔고 여기에는 원자재 공급자와의 가격 협상과 경영비용의 절감, 생산과정에서의 기술 혁신 등의 조치가 포함됨.
- 이외에도 Scavi는 베트남 직물·의류협회의 회원사들과 협조하여 임금상승에 따른 높은 생산비를 상쇄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들과 협상을 하고 있음.
- 사실 최저임금 상승은 Scavi와 같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보다 매달 고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상승은 내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를 활용하기위해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직물/의류 회사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임.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중고기계 수입금지에 의해 난관에 빠진 외국기업

- 베트남 정부가 부품소재산업발전을 위해 일본 중소기업들의 투자를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투자자들은 불분명한 중고기계 수입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가 저해되고 있음.

- Chikara Fujita, Kansai 지역 경제통상위원장은 최근 Kansai 지역 기업들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간 회의에서 불분명한 규제로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만들고 있다고 함. 이 기업들은 대부분 부품소재산업 기업들이고 이로 인해 베트남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 지난 11월, 베트남 정부는 중고기계 거래와 관련된 상법 시행령을 공포함. 이 시행령은 과학기술부로 하여금 수입 가능한 중고기계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유예기간 동안 중고기계 수입은 과학 기술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이로 인해 투자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음.
- Do Hoai Nam 과학기술부 기술평가 감독관은 새로운 기준의 취지가 베트남으로 구식 기계가 수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다고 말함.
- Fujita는 중고기계 수입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절차는 단순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불분명한 규제로 많은 일본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함.
- Yoshilo Kobatashi, Kansai 경제연합 국제위원장은 많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 하는데 베트남이 중고기계 수입규제 기준을 강화 한다면 투자계획이 지장 받을 수 있다고 말함.
- Mitsuhiko Lino, Toyo Drilube 회사 사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고기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함.
- Do Hoai Nam 과학기술부 기술평가 감독관은 상한 5년의 80%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기계 수입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공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베트남의 투자유치, 금년에도 지속 증가할 듯

- 2014년 베트남 경제성장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회복의 중요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청(FIA)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 총 신규 FDI 투입이 전년 대비 54.5% 오른 216억불에 육박했다고 함. 이에 투자금액을 17억에서 31억8천불로 늘린 영국계 기업 Technostar의 Vung Ro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복합단지를 포함하면, 총 신규 FDI 투입은 230억불임.
- 2013년 FDI 금액 또한 작년 4.9%의 소폭 상승과 비교하여, 9.9% 반등하며 115억불을 달성하는 큰 회복세를 보임.

- 주목할만한 FDI 사업들 중 삼성그룹은 지난 10월 기획투자부(MPI)와 전기, 도시개발, 공항, 화학 엔지니어링, 조선 그리고 공공 정보통신기술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과 협력을 맺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함. 삼성은 이 양해각서를 통하여 하띤과 팡빈에 위치한 Vung Ang3과 Quang Trach2 발전소에 참여하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음. 또한 Long Son 정유공장과 바리아-붕따우에 위치한 석유화학 사업에 투자하고 동나이에 위치한 룡탄 국제공항 투자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계획임. 게다가, Vinashin으로 알려진 SBIC(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와 2011년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선박 회사들의 구조조정을 같이 도울 예정임.
-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 20%를 기여하였고 2013년 국가 수출액에 3분의 2를 차지하였다고 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BBC조사, 베트남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다뤄

- 향상된 생활수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음.
- 최근 영국의 공영 방송사인 BBC는 베트남 내 3,486가구에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는 자신의 삶이 지난 5년간 더 나아졌고 14%는 더 악화되었다고 말함.
- 그러나 발전은 오염, 인구 과잉, 폐기물 관리와 산업 성장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고 사람들은 환경악화와 그들의 건강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경험함. 사람들 중 80%는 그들의 건강이 환경 및 기후 변화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느꼈고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88%가 이를 느낌.
- 베트남 전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후 및 환경 변화를 감지하였고, 그 중 눈에 띄는 변화는 덥고 차가운 온도의 예측할 수 없는 극치임. 응답자의 50%는 기온이 더 극심해졌다고 하는 반면, 89%는 지난 10년간 온도가 올랐다고 함. 또한 강우량의 예측 가능성과 강도에 대한 변화와 마찬가지로, 해충과 곤충의 숫자가 증가함. 이는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손상을 주는 더 많은 양의 살충제 사용을 유도함.
- 베트남 내 이러한 관찰은 엘니뇨-라니냐 남부 진동과 관련된 갑작스러운 홍수와 가뭄을 유발하는 극심한 강우량의 증가를 보여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EVN, 두산중공업·미쓰비시와 빈탄 4 발전소 EPC 계약 체결

- 베트남 전력공사(EVN)은 지난주 한국의 두산중공업, 일본의 미쓰비시사, 베트남의 2개 파트너사와 함께 1,200MW급의 빈탄 4 화력발전소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함. 동 계약은 13억 6천 달러의 규모로 이의 85%를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내 자본금이 투입됨.
- 발전소 건설은 내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첫 단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2018년 두 번째 단계가 완료될 예정임. 빈 투언 성에 위치한 빈편 4 발전소는 빈편 전력 센터의 하나로 남부 지방의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임. 이 빈편 전력 센터는 총 5,600MW 규모의 발전소 4개를 포함함. 베트남은 최근 늘어나는 인구와 경제적인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매년 10%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2013년 베트남 대외교역 최고조 달해

- 2013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1,322억 달러, 수입액은 1,313억 달러로 각각 작년 대비 15.4% 증가했으며, 총 수출입 금액은 2,635억 달러로 이때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20년간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베트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2012년 7억 8천만 달러, 2013년 9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함.
- 지난 12개월간 수출품목에 있어서는 핸드폰 및 관련부품의 총 수출액이 섬유, 의류, 신발, 원유와 같은 베트남 주 수출품목의 수출액을 넘어섬. 베트남 핸드폰 수출의 98%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013년 220억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삼성의 활동으로 베트남의 핸드폰 수출액은 2015년까지 300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품목에 있어서는 기계장비, 석유제품, 섬유 소재, 플라스틱, 오토바이의 총 수입액이 줄어들었으며, 첨단기술제품의 비율은 2002년 3%에서 5배정도 증가하여 2012년 16%를 차지함. 베트남의 전자제품, 컴퓨터 및 부품의 수입은 작년 대비 16% 증가한 18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직물 84억 달러, 의류 및 신발 소재는 37억 달러를 기록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2013년 베트남 성장률 5.4% 기록

- 2013년 베트남 GDP 성장률은 계획된 5.5%보다 낮은 5.42%를 기록했지만 2012년의 5.25%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임. 산업생산지수(IIP)는 2012년 동기대비 5.7% 상승함.

- 특히, GDP의 70%를 차지하는 제조 가공 산업 부문은 2012년 5.5% 상승한 것에 비해 7.2% 상승함. 2013년 1월 21.5%였던 재고량은 12월 기준 10.2%로 줄어들었으며, 총 서비스 이익은 작년 5.9%의 성장률을 보인 것에 높은 6.56%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인해 2012년의 6.81%의 성장률보다 낮은 6.04%를 기록했으며 이는 계획된 8%보다 낮은 수치임.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하노이의 경제성장률은 8.15%를 기록하였으며, 광안 성의 세입은 2012년 보다 두 배인 15억 8천만 달러를 나타내었고 호치민시는 생산의 회복으로 9.3%의 성장세를 기록함.
- 2014년 베트남 정부의 사회경제적 목표에 대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5.8%, 수출액 10%, 인플레이션 상승률 7%, 총 개발 자본 GDP의 30%, 재정적자 GDP의 5.3%로 계획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인텔, 탈세 무형의 처분

- 베트남 재정부는 반도체 제조 기업인 인텔 베트남에 대하여 자본이전 거래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해 무형의 처분을 내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인텔 아시아 홀딩스를 다른 자회사에게 원가와 비슷한 가격인 1억불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탈세 혐의를 제기함. 자본이전 거래는 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기업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
- 재정부 부장관에 따르면 인텔의 자본이전 거래는 운영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것이며 세법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힘. 또한 인텔 베트남이 자본이전을 하기 전 인민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이사회에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임.
- 미국의 인텔 베트남의 지주회사는 네덜란드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네덜란드 회사는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여 이 홍콩의 회사는 베트남에 인텔 베트남을 설립함. 이는 인텔 베트남의 소유주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이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TPP협정으로 미국기업 진출 발판 제공

- 미국 기업들, 특히 의류, 섬유, 신발 및 수산물 등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조 업체들이 이번 TPP 협정의 투자 및 무역 관련 인센티브에 관해 이윤 창출 기회를 노리고 있음. 지난 8월 20개의 의류, 섬유, 신발, 통신 및 금융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음.

- 미국 통상 대표부(US Trade) 대사 Demetrios Marantis씨는 TPP 협상으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대 베트남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2014년 발효될 TPP 협약을 통해 큰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또한 이번 TPP 협상으로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국가 개혁을 가속화 시켜 나아가 동남아 지역의 공급 네트워크의 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봄.
- 미국 상무부 하 미국 및 해외 상무 서비스 부장 Judy Rising Reinke씨는 미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농업 및 건강 분야에도 투자하고 싶어한다고 전함. 더불어 미국 기업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공고한 유통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다고 밝혔음.
- 미국의 BowerGroupAsia사의 투자 고문 Nguyen Viet Ha씨는 자신의 고객들이 베트남의 소비재와 보험시장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2013년 베트남 10대 대외 뉴스

1. 결의안 22 제정
4월 10일, 중앙위원회가 국제 통합에 관한 결의안 22를 제정함. 이를 통해 독립, 자주, 다자화라는 외교 정책아래 지역과 세계 통합에 관한 결의를 확실히 함.
2. 외국과의 유대 강화
프랑스(9월), 싱가포르(9월), 태국(6월) 및 인도네시아(6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약.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미국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 6개 자유무역 협정 협상 진척.
3. 2014년부터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9월 27일, Nguyen Tan Dung 수상이 68회 UN 총회에서 2014년부터 UN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할 것을 발표함.
4. UN 인권위원국으로의 발탁
11월 12일, 68회 UN 총회에서 베트남이 UN 인권위원회의 14번째 위원국으로 발탁됨.
5. 5개국의 베트남 시장경제 시장 인정
세르비아, 세이셸, 나미비아, 콩고 및 이집트가 베트남을 경제 기반 경제로 인정함.
6. 협의회(CG)가 베트남 발전 동반자 포럼(VDPF)로 진보
정부와 국제 발전 동반자간의 발전 정책과 기부 서약에 관한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국제개발원조 분위기와 베트남의 임금 사정을 반영하는 기구로의 개혁임.

7. APEC 성공적 개최

베트남이 21회 중앙 아시아-태평양 회의를 하노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 베트남과 국제 대표 총 150명이 참여하여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의 역할 지위를 높이는 계기가 됨.

8. ASEM 회의에서 다누베-메콩 협업 계획 박차

베트남 남부 켄터(Can Tho)시에서 개최된 녹색 성장 회의에서 메콩강 외곽지역의 협업을 지역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림. 이 회의는 ASEM 회원 51개국의 150명이 참여했음.

9. 재난 방지와 기후변화 경감 위한 ASEM 고위급 회담 조직

11월 하노이에서 재난 방지와 기후변화 경감에 대한 ASEM 고위급 회담을 조직하여 ASEM 회원국의 120명의 대표단을 유치함.

10. WTO협상 이행

베트남은 2월 WTO 정부 조달 위원회 회담에 참석하고 9월 WTO 상업 정책 보고 등 지속적으로 WTO의 협약을 이행하고 있음.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12.30일 -

입찰정보

Research to develop and master Balloon catheter and Drug eluting stent for PTCA manufacturing technology using nanotechnology

Introduction			
Nation	Vietnam	Place of Project	Ho Chi Minh City, Vietnam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United Healthcare Factory Co., Ltd.	Estimated Value of Project	US\$ 9,810,000.00
Way of Order	Bidding	Way of Bidder Select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Funding Source	State budget and investor's own fund	Detail Funding Sources	34.84% is supported by State budget (Preferential loan with the interest rate of 0% for the first 7 years) 65.16% is investor's own fund
Current Process	Bidding period	Bid closing time	8.00a.m, 20 January 2014
Duration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3 months as from contract signing date		
Details of Project	INVITATION TO BID - Name Of Procuring Entity: United Healthcare Factory Co., Ltd. - Name of procurement package: Technology transfer for manufacturing Balloon Catheter and Drug eluting stent for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by Nanotechnology. - Name of project: Research to develop and master Balloon catheter and Drug eluting stent for PTCA manufacturing technology using nanotechnology - Source of fund: 34.84% is supported by State budget; 65.16% is investor's own fund. - Method of bidder selection: Open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Time of selling bidding documents: from 9.00a.m, 20th December		

	2013 to 8.00a.m, 20 January 2014 (during working hours). - Place of selling bidding documents and place of receiving the bids: Floor 5, Lu Gia Plaza, 70 Lu Gia, Ward 15, District 11, Ho Chi Minh City, Vietnam - Price of bidding documents: 1.000.000 VND (one million Vietnam dong) - Bid closing time: 8.00a.m, 20 January 2014 - Bids will be publicly opened at 8.30a.m, 20 January 2014 (Vietnam hour) at Floor 5, Lu Gia Plaza, 70 Lu Gia, Ward 15, District 11, Ho Chi Minh City, Vietnam
KBC Opinion	Due to bidder selection method will b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company to participate in and win the bid.
Others	* Information Sources: Vietnam News, Wednesday, December 18, 2013 and Saigon Hi-Tech Park's website * Interview Date: December 26,2013

Information Organization			
The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United Healthcare Factory Co., Ltd.		
The names of personnel	Ha Hoang Anh,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eputy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84-8-62644974	E-Mail	hahoanganh@uhcjsc.com
Mobile	84 983 92 4937	Homepage	N/A

베트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 방침

- 12월 18일, 베트남 최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
- 베트남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실태 조사 외국인투자기업 우선 대상 -

□ 베트남 내 최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 12월 18일,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과 Lac Viet사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대만계 회사 Gold Long John Dong Nai International를 고소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베트남 최초의 소송 사례 발생
 - Gold Long John Dong Nai International은 나이키, 아디다스, 컨버스 같은 유명 브랜드 업체의 신발용 직물 생산 업체로, 동나이성 Nhon Trach 2산업단지에 위치
- 이번 소송 전인 지난 6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회안전부는 Lac Viet과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사의 요청으로 이 대만계 회사의 소프트웨어 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69대 컴퓨터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적발한 바 있음.
 - 회사의 운영 프로그램으로 사용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규모는 약 4만5000달러의 가치에 달함.
 - Gold Long John의 대표는 이 회사가 지적재산권법을 위반하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 있음.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비록 이전에도 저작권 문제에 관한 소송이 있었지만, 이번 건은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과 관련한 첫 소송으로 이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현황

- 베트남 당국은 2004년 이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해 대응해왔으나, 지난 9년 동안의 대응조치는 행정처벌로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돼왔음.
 - 하지만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던 벌금형 대신에 저작권자들에게 소송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음.
- 미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단체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따르면, 베트남의 현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4년 92%에서 2011년 11%p 하락한 81%로 추산되며 최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예측

-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품가치는 201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3억9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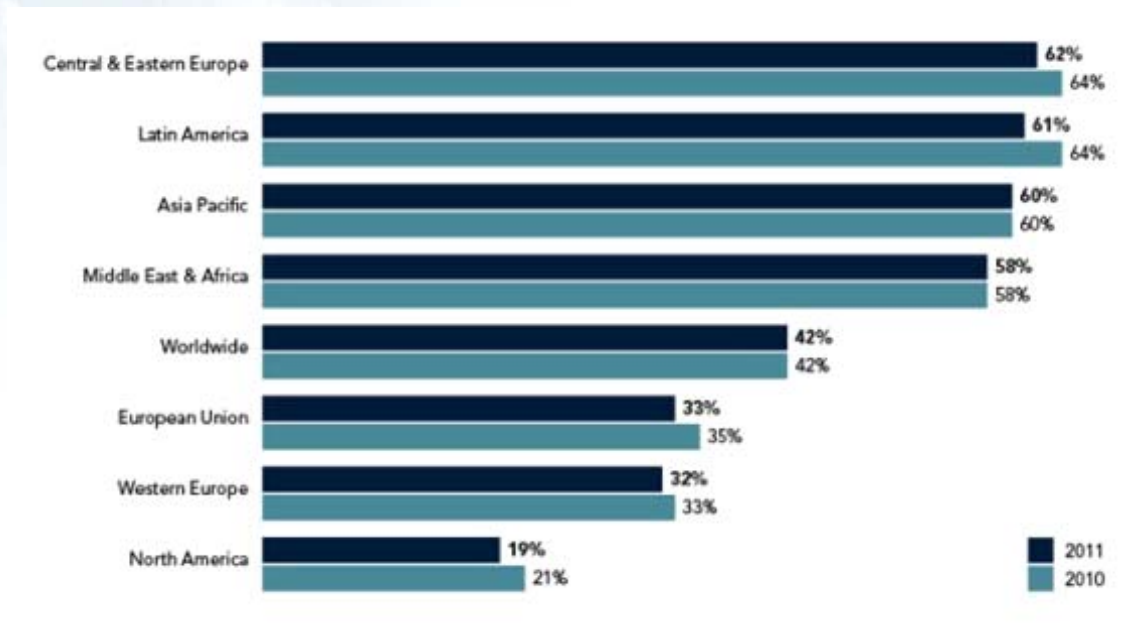
- BSA 아시아태평양 본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율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개선 요인으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크게 평가했음.

< 2007~2011년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및 불법 소프트웨어의 규모 >

(단위: %, 백만달러)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불법 복제율	85	85	85	83	81
불법 소프트웨어시장 규모	200	257	353	412	395

< 지역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 >



자료원: Business Software Alliance

- 그러나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균 불법복제율이 각각 60%와 42%인 만큼 앞으로 더욱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BSA에 따르면 베트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18년까지 70% 수준으로 2023년까지 60%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시사점: S/W 저작권 보호 개선 및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주의

- 최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은 베트남 내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음.

- Lac Viet사에 따르면 소송금액인 4만5000달러는 Lac Viet과 마이크로소프트 베트남에 큰 규모의 돈은 아니지만, 다른 무단복제자들에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베트남 정부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하노이에 위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무작위로 선택해 50만 달러 가치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적발함.

○ 베트남 정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적발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움직임은 소프트웨어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와 함께 베트남 정보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작성 : Vietnam News,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KOTRA 하노이무역관 이보름 과장

베트남 진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경리장(Chief Accountant)'

이정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한국에서 한글로 된 우리나라 법 규정을 봐도 머리 아프고 이해하기 힘들데 타국에서, 그것도 한글이 아닌 베트남어, 영어로 된 법 규정, 규칙, 시행령을 접하게 되니 더 난감한 것이 우리 기업 실무자 및 독자 여러분의 고충일 겁니다. 하지만 마냥 모르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 초기 진출 시 회계 및 세무 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경리장’에 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 경리장(Chief Accountant)이란 누구인가?

첫 번째 주제선정으로, 경리장에 관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보통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면 공장 설립부터 투자허가서 발급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경리장이라는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데 대체 경리장이라는 직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반드시 뽑아야만 하는 것인지 또, 못 뽑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Chief Accountant’, 즉, 우리말로 ‘경리장’이라고 흔히 통칭해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기업 회계 및 세무적인 사항에 대해 총 책임을 지는 회계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Chief Accountant’ 자격증(License)을 소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쉽게 한국식으로 경리과장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실무적으로 이해하자면, 단순한 경리과장 정도의 지위를 넘어서 CFO 정도의 지위와 권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 경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 경리장의 권리, 의무, 자격요건,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Chief Accountant 에 관한 세부규정은 회계에 관한 법 및 그 하위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Chief Accountant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근거 규정은 회계법 48조 및 그 시행령 37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기업(내, 외국법인 불문)은 설립과 동시에 즉시 Chief Accountant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Chief Accountant가 없는 경우(즉, 갑작스런 사직 구인상의 어려움 등)에는 공석방지를 위해 다른 직원이 Chief Accountant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임명해야 하, 1년 안에 자격을 갖춘 Chief Accountant 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갑작스런 사직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기는 경우 법에서 정한 Chief Accountant 자격이 없는 사람도(한국인 관리자 포함) 1년간은 Chief Accountant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 Chief Accountant가 공석이 되면 갑자기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생각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 어떻게 해야 경리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경리장의 자격 요건)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Chief Accountant 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회계법 53조와 시행령 3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 1) 정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실무 경력
- 2) Chief Accountant 교육 과정 이수(통상 3일/주, 총 6개월 과정)
- 3) 상기 교육과정 수료후 MOF(Ministry Of Finance : 재무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규에 합당한 Chief Accountant로서 인정됩니다. 일부 사례의 경우 1)과 2)의 요건은 충족하나 3)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채로 Chief Accountant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MOF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서가 아니고 2)의 Chief Accountant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증서들이 베트남어로 쓰여져 있어 외국인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2)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즉, 한 번의 교육과정에 대해 한 번의 시험만 있습니다.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여러 번 시험을 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투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Chief Accountant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었으며, 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간단하게 Chief Accountant로 적법하게 등록이 가능했었으나, 지금은 외국인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동일하게 상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Chief Accountant가 될 수 있으나, 교육 과정 및 시험이 베트남어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Chief Accountant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Tax Code 등록을 할 때** 관할 세무서에 인적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4. 주의사항

Chief Accountant는 회사의 모든 회계,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서류에 서명할 권리 및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회계, 자금집행, 세무관련 서류에 Chief Accountant의 서명이 없으면,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서명이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Part Time 형태로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Chief Accountant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각각의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Accountancy Service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MOF로부터 별도의 업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계약도 없이 Part Time으로 여러 회사에 Chief Accountant로 등록해 역할을 하는 것은 회계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Chief Accountant의 급여가 높은 편이어서 주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업무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 이렇게 Part Time으로 활동하는 Chief Accountant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회계법 55조 이하에서는 Chief accountant를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서비스업이 등록된 회계법인, 상기 설명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의 경우 적법하게 Chief Accountant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에 대한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아웃소싱해 Chief Accountant를 대행하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Auditing Service)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으로, 이 때문에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중에 Chief Accountant 자격증을 가진 개인으로 해금 대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보고서 등에 Chief Accountant 서명이 회계법인 대표 명의로 돼 있지 않고, 회계법인의 직원 개인 명의로 돼 있으며, 개인이 위에서 설명드린 회계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및 MOF로부터 업무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은 Chief Accountant 대행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Chief Accountant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실력이 검증된 능력 있는 Chief Accountant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부 Chief Accountant 역시 이를 악용해 급여인상을 목적으로 수시로 근무 회사를 옮겨 다니는 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Chief Accountant를 채용할 때 더 세심한 경력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Chief Accountant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일부 파트타임 Chief Accountant의 경우 회사의 주요 서류들을 집에 보관한다든지 회사에서 요청 시 이에 불응하거나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13.11.20 기준 누계			2013. 1. 1~ 11.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일 본	2,103	34,526	11,199	265	1,250	4,432
싱가포르	1,213	29,169	7,606	99	3,008	1,271
한 국	3,514	28,883	9,136	331	3,655	474
대 만	2,281	27,818	11,313	60	345	154
버진아일랜드(영)	516	15,486	5,271	12	205	31
홍 콩	755	12,585	4,001	52	595	98
미 국	671	10,619	2,562	30	55	70
말레이시아	450	10,325	3,606	20	30	108
중 국	972	6,962	2,868	85	2,255	20
태 국	330	6,462	2,795	36	353	45
네덜란드	191	6,037	2,544	15	39	99
전체 합계	15,600	229,233	78,338	1,175	13,779	7,036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13. 11.20 기준 누계			2013. 1. 1~ 11.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8,578	122,168	43,796	557	9,615	6,464
2	부동산경영	405	48,729	12,484	20	757	127
3	호텔, 외식서비스	342	10,744	2,770	16	118	117
4	건설	1,020	9,830	3,630	93	162	12
5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91	9,530	2,043	3	2,020	11
6	정보통신	903	3,995	2,241	82	42	12
7	예술 오락	141	3,673	1,075	6	3	43
8	물류운수	374	3,537	1,083	23	26	19
9	농,임,수산	501	3,354	1,735	10	61	26
10	도소매,유지보수	1,067	3,315	1,739	176	340	76
11	채광	81	3,262	2,606	3	31	49
12	기술과학전문	1,488	1,508	891	158	371	41
13	금융, 은행, 보험	77	1,322	1,173	1	0.3	1
14	의료와 사회복지	89	1,312	327	8	88	1
15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1	1,285	316	3	51	0.2
16	기타서비스	126	746	159	6	12	2
17	교육, 양성	169	731	169	6	82	36
18	행정, 지원 서비스	117	194	101	4	1	
합계		15,600	229,233	78,338	1,175	13,779	7,036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Dec, 2013)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0	2011	2012	2013.12월(*)
수 출	721.9	969.1	1,145.7	1,321.8
수 입	848.0	1,067.5	1,137.9	1,313.1
무역수지	-126.1	-98.4	7.8	8.7

자료원 :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12월(*)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6,886	12,717	21,517
섬유/직물제품	11,210	14,043	15,093	17,891
전기전자제품/부품	3,590	4,670	7,838	10,677
신발류	5,122	6,549	7,262	8,366
원유	4,958	7,241	8,229	7,236
수산물	5,016	6,112	6,093	6,734
기계/플랜트 및 부품	3,057	4,160	5,537	6,033
목제품	3,436	3,955	4,666	5,496
수송수단 및 부품	1,578	2,354	4,580	4,938
쌀	3,248	3,657	3,673	2,986
기 타	30,977	37,279	38,885	40,301
합 계	72,192	96,906	114,573	132,17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12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13,691	15,342	16,037	18,598
전자제품 및 컴퓨터	5,209	7,974	13,111	17,684
의류(원단)	5,362	6,730	7,040	8,40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	5,042	8,041
유류제품	6,078	9,878	8,959	6,980
철강제품	6,155	6,434	5,967	6,654
플라스틱 원료	3,776	4,760	4,804	5,710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2,621	2,948	3,160	3,750
사료 및 원료	2,173	2,373	2,456	3,036
화학 원료	2,119	2,696	2,780	2,968
기 타	37,617	47,615	44,436	49,486
합 계	84,801	106,750	113,792	131,312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주*) 추정치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10월
1	미 국	14,238	16,928	19,668	19,487
2	일 본	7,728	10,781	13,060	11,111
3	중 국	7,309	11,125	12,388	10,700
4	한 국	3,092	4,715	5,580	5,490
5	말레이시아	2,093	2,832	4,496	4,185
6	독 일	2,373	3,367	4,095	3,886
7	UAE	508	922	2,078	3,531
8	영 국	1,681	2,398	3,034	3,168
9	홍 콩	1,464	2,206	3,706	3,159
10	호 주	2,704	2,519	3,241	2,897
	기 타	29,002	39,113	43,227	41,109
	합 계	72,192	96,906	114,573	108,723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0	2011	2012	2013.10월
1	중 국	20,019	24,594	28,786	30,375
2	한 국	9,761	13,176	15,536	17,259
3	일 본	9,016	10,400	11,603	9,522
4	대 만	6,977	8,557	8,534	7,780
6	태 국	5,602	6,384	5,792	5,188
5	싱가포르	4,101	6,391	6,690	4,955
7	미 국	3,767	4,529	4,827	4,272
8	말레이시아	3,413	3,920	3,412	3,363
9	인 도	1,762	2,346	2,161	2,325
10	독 일	1,742	2,199	2,377	2,270
	기 타	18,641	24,254	24,074	21,560
	합 계	84,801	106,750	113,792	108,86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0	2011	2012	2013.11월
수 출	9,652(35.0)	13,551(40.4)	15,946(18.4)	19,272(33.4)
수 입	3,330(40.5)	5,084(52.6)	5,718(12.5)	6,548(24.7)
무역수지	6,322	8,467	10,236	12,72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11월
전자부품	275(127.5)	1,345(389.0)	3,626(169.6)	4,905(51.7)
산업용전자제품	878(134.8)	1,553(77.0)	1,282(-17.4)	2,290(101.8)
직물	1,144(18.4)	1,424(24.4)	1,505(5.8)	1,644(19.7)
석유화학제품	962(42.1)	1,219(26.7)	1,294(6.1)	1,388(17.7)
철강제품	1,431(80.3)	1,763(23.2)	1,468(-16.7)	1,380(2.9)
중전기	117(80.8)	307(161.6)	569(85.1)	961(89.3)
비철금속제품	367(59.7)	487(32.7)	553(13.6)	678(38.3)
수송기계	944(-15.6)	1,063(12.6)	704(-33.7)	647(1.2)
광물성연료	834(13.7)	1,092(31.0)	1,175(7.6)	599(-47.0)
산업기계	443(43.3)	422(-4.8)	426(1.0)	537(36.1)
기 타	2,257	2,876	3,354	4,243
합 계	9,652(35.0)	13,551(40.4)	15,956(18.4)	19,272(33.4)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0	2011	2012	2013.11월
섬유제품	491(64.0)	977(99.1)	1,255(28.5)	1,745(48.0)
광물성연료	767(33.2)	1,124(46.6)	987(-12.2)	978(7.7)
수산물	376(23.3)	481(27.9)	506(5.2)	427(-5.2)
전자부품	51(198.1)	122(139.9)	259(111.9)	393(69.0)
신변잡화	173(38.9)	267(54.3)	330(23.6)	377(24.6)
산업용전자제품	119(33.5)	166(39.5)	219(32.4)	294(48.7)
농산물	124(-11.8)	246(99.1)	346(40.6)	291(-9.2)
임산물	189(104.5)	268(41.6)	277(3.3)	280(11.3)
섬유사	270(43.8)	316(17.0)	233(-26.2)	221(3.8)
비철금속제품	52(85.5)	92(78.0)	136(47.7)	192(63.4)
기 타	719	1,025	1,171	1,350
합 계	3,331(40.5)	5,084(52.6)	5,719(12.5)	6,548(24.7)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하노이무역관 고문변호사/회계사 현황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	Tel	Emai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최지웅	법무법인 JP/ 변호사	84-4-3724-5201	choilaw@hotmail.com	법률
고문회계사	엄진용	이정 회계법인/ 회계사	84-4-3556-0470	uhmcpa77@e-jung.co.kr	회계

KOTRA 호치민무역관 고문변호사 현황

구분	성명	현지법인명/직위	Tel	Email	특기사항
고문변호사	박희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84-8-3822-7161	hgpark@lawlogos.com	투자 · 지적재산권
고문변호사	이수정	법무법인 JP /변호사	84-8-3910-0619	soha8624@gmail.com	법률

◎ 고문변호사 무료 상담

- 하노이: 월 2회(매월 2주, 4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고문변호사 대면 상담
 - 담당자 : 김경돈 대리(kimkdon@ymail.com)
- 호치민: 월 1회(매월 2주차 금요일) 사전 예약, 고문변호사 대면 상담
 - 사전 예약시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질문 내용에 대해 사전 송부 요망
 - 담당자 : 노동욱 대리(kotrasgn@hanmail.net)

◎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산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중소· 중견 기업
- 문의처: KOTRA 호치민무역관 류은정 대리 (ejryu89@yahoo.com), (T) 84-8-3822-3944)

◎ 베트남 투자 한국기업 현지경영 애로사항 접수 (베트남 총리실 공동추진)

=> 김경돈 대리, (T)84-4-3946-0511, (F)84-4-3946-0519, kimkdon@ymail.com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전용 구인구직 웹사이트 운영(무료)

www.workwithkorea.com (www.workwithkorea.com.vn)

◎ 코트라 한-베 취업 카페

<http://cafe.naver.com/kotrahochiminh>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 OIS 안내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해외 투자진출 정보 포털은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의 해외투자진출 정보를 One-Stop 서비스합니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P, KIET 등 31개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실> 해외투자Q&A](#)'에 올려 주세요.

OIS(www.ois.go.kr)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2007년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진출정보포털 사이트입니다.